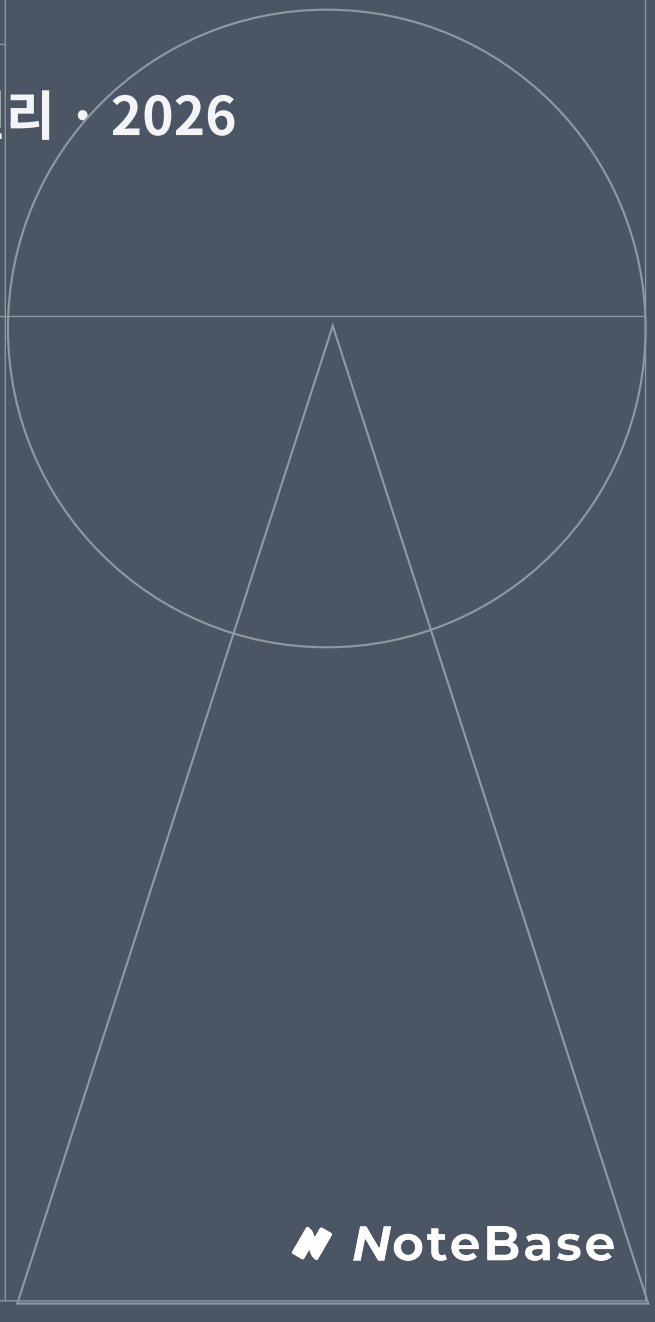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6

문 1. (가)~(다)에 들어갈 말을 A~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A. 비교가능성 B. 검증가능성 C. 적시성

① (가): A, (나): B, (다): C
② (가): B, (나): C, (다): A
③ (가): C, (나): A, (다): B
④ (가): C, (나): B, (다): A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닌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정보의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이다. 모든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C, 적시성: 정보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의사결정을 마친 뒤에야 제공된다면 그 결정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시성에 해당한다.

(나) B,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닌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나타내려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한다. 반드시 모든 관찰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적시성과 달리, 정보의 표현충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특성이다.

(다) A, 비교가능성: 이용자가 항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업의 정보를 비교하거나 같은 기업의 여러 기간에 걸친 정보를 비교할 때 필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가)는 C, (나)는 B, (다)는 A로 연결되며, 이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200,000이고,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는 ₩150,000이다. 기말 미지급급여가 ₩120,000일 경우, 기초 미지급급여는?

① ₩130,000

② ₩150,000

③ ₩170,000

④ ₩19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현금 지급액이 당기 급여비용보다 50,000원 많으므로 **미지급급여가 50,000원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 미지급급여는 기말 120,000원에 감소액을 더한 170,000원이다.

계산 과정

미지급급여는 급여가 발생하여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이다. 기초 미지급급여에 당기 급여비용 150,000원을 더하고, 현금 지급액 200,000원을 빼면 기말 미지급급여가 된다. 급여비용의 발생은 갚아야 할 금액을 늘리고, **현금 지급은 그 금액을 줄이기** 때문이다.

당기 현금 지급액과 급여비용의 차이는 200,000 − 150,000 = 50,000원이다. 이는 당기에 발생한 급여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하여 **미지급급여 잔액이 50,000원 감소**했음을 뜻한다.

기말 미지급급여가 120,000원이므로, 감소하기 전인 기초 미지급급여는 120,000 + 50,000 = 170,000원이다. 이는 ③의 17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한국의 기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30,000, ₩10,000이며, 기말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 ₩20,000이다. ㈜한국은 기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였다. 당기순이익이 ₩12,000일 때, ㈜한국이 기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은?

① ₩2,000

② ₩8,000

③ ₩10,000

④ ₩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항목만 바꾸므로 자본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본은 10,000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2,000원이므로, 그 차이인 2,000원이 현금배당으로 유출되었다.

계산 과정

기초·기말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기초 자본은 30,000 − 10,000 = 20,000원이고, 기말 자본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기중 자본의 순증가액은 10,000원이다.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의 영향: 무상증자는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래이므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현금배당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므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배당 선언 시 자본이 감소하고 미지급배당금이 발생하며, 지급 시에는 현금과 미지급배당금이 함께 감소한다. 따라서 선언과 지급을 이유로 자본 감소액을 두 번 차감하지 않는다.

현금배당 계산: 이 문제에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현금배당을 차감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을 모두 남겼다면 자본은 20,000 + 12,000 = 32,000원이지만, 실제 기말 자본은 30,000원이다. 이 차이가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이므로 현금배당은 32,000 − 30,000 = 2,000원이다. 이는 ①의 ₩2,000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④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순공정가치'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고쳐야 한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에는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상품·제품뿐 아니라, 판매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될 **원재료도 포함**된다. 원재료는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이다.

② X: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예상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해당 기업이 재고자산을 팔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순액으로,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에서 판매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와 구별된다.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낮춘다.

③ O: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수탁자가 판매를 대신하기 위해 보관하는 상품이다. 매장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의 통제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판매 전까지 **통제를 유지하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귀속은 단순한 보관 장소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O: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전환원가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가 포함된다. 판매수수료 등 판매활동을 위한 판매원가는 이러한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5. 다음의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① 무상감자 결의 및 실시
② 주식배당 결의 및 교부
③ 자기주식의 소각
④ 주식의 액면발행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새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늘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든다.

핵심 풀이

주식배당은 배당할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익잉여금 중 배당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수도 증가하므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자본금 증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발행주식수 증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주식의 액면발행은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출자금을 받는 거래이다.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①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③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평가이익

④ 최초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손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거래**이므로 처분차액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처분손익은 자본에 직접 반영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이를 처분하면서 생기는 차액도 **자본에 직접 반영**하므로 당기수익이나 당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X: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도 자금을 제공한 대가인 이자수익은 발생한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을 증가시킨다. 상각후원가라는 측정방식이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따라서 평가이익은 처분 전이라도 **당기손익을 증가**시키며, 재평가잉여금으로 적립하는 항목이 아니다.

④ X: 무형자산의 재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잔액 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줄인다. 이 항목은 **최초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므로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며, 재평가손실 전액이 당기손익을 감소시킨다.

NoteBase

문 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기말재고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은 각각 ₩300,000, ₩500,000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과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며,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30,000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를 반영한 매출원가는 ₩550,000이다.

① ₩170,000

② ₩200,000

③ ₩220,000

④ ₩2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 550,000원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정상적인 감모손실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판매가능재고 800,000원에서 매출원가와 별도 비용인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30,000원을 빼면 기말재고는 220,000원이다.

계산 과정

판매가능재고: 기초에 보유한 재고와 당기에 매입한 재고를 합하면 판매하거나 기말에 보유할 수 있는 재고의 원가가 된다. 따라서 판매가능재고는 300,000 + 500,000 = 800,000원이다.

매출원가에 포함된 손실: 자료에서 매출원가 550,000원은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원과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판매가능재고에서 이 매출원가를 빼면 두 손실도 함께 차감된다. 두 손실을 **다시 차감하면 중복 차감**이 된다.

별도로 차감할 손실: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30,000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없어진 재고의 원가이므로 기말재고를 구할 때는 매출원가와 별도로 차감해야 한다.

기말재고는 800,000 - 550,000 - 30,000 = 22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 구분은 비용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기능별 분류법**이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원재료 사용액처럼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체 재무제표는 비교정보를 포함하여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보고기간이 1년보다 길거나 짧아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무제표 금액이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② O: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각 표시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상계란 서로 차감하여 순액만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허용하면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③ O: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정상영업주기 안에서 순환하는 자산·부채와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자산·부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X: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처럼 비용을 기업 내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반면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원재료 사용액 등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합산하며, 이를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격별 분류에서는 종업원급여를 하나의 성격으로 모으지만, 기능별 분류에서는 그 급여를 관련 활동에 따라 매출원가나 관리활동원가 등에 배분한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장부마감 전 원장의 매출채권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이다. 장부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		소모품비	
기초 6,000	현금 42,000	현금 10,000	소모품 8,000
매출 50,000			

①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해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록한다.

②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지 않다.

③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다.

④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으로 이익잉여금이 ₩2,000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모품비 잔액 2,000원은 당기의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이를 마감하여 손익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면 이익잉여금은 2,000원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출채권의 차변 합계는 기초 6,000원과 매출 50,000원을 합한 56,000원이고, 대변의 현금 회수액은 42,000원이다. 따라서 차변 잔액은 56,000 − 42,000 = 14,000원이다. 원장을 마감할 때는 잔액의 반대쪽인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원**을 적어 차변·대변 합계를 일치시키고, 다음 기초에 차변으로 전기이월한다.

② O: 매출채권은 회계기간이 끝나도 잔액이 다음 기간으로 이어지는 자산 계정이다. 따라서 잔액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마감분개는 하지 않고, **원장에서 잔액을 이월**한다. 대변의 차기이월 표시는 장부를 마감하기 위한 기입이며, 실제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분개가 아니다.

③ O: 소모품비는 당기의 비용을 모으는 계정이므로, 다음 기간의 비용과 구분하기 위해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든다. 제시된 소모품비의 차변 잔액은 10,000 − 8,000 = 2,000원이다. 따라서 차변에 손익 2,000원, 대변에 소모품비 2,000원을 기록하는 마감분개가 필요하다.

④ X: 소모품비 2,000원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하면 손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손익 계정의 최종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므로, 이 소모품비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2,000원 감소**이다.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항목이므로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마감분개는 이미 인식한 비용을 손익에 모으는 절차이며, 비용을 한 번 더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계정과목	기초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①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②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③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④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익잉여금의 다른 변동이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액 400,000원이 **당기순이익**이다. 여기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액 100,000원을 반영하면 **당기포괄이익은 300,000원**이다.

계산 과정

당기순손익: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처분·대체가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기말액과 기초액 차이**가 당기순손익이다. 표에서 기초 500,000원, 기말 900,000원이므로 900,000 − 500,000 = 400,000원이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으므로 당기순이익 400,000원이다.

당기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이 누적된 금액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기기타포괄손익은 기말 누계액에서 기초 누계액을 빼서 구한다. 300,000 − 400,000 = −100,000원이므로 당기에 **기타포괄손실 100,000원**이 발생했다. 기말 잔액이 양수이더라도 기초보다 감소했다면 당기의 기타포괄손익은 손실이다.

당기포괄손익: 당기순손익에 당기기타포괄손익을 더한다. 따라서 400,000 + (−100,000) = 300,000원으로, 당기포괄이익 300,000원이다.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은 포괄손익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거래도 없다.

당기순이익 400,000원과 당기포괄이익 300,000원의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400,000(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말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20×2년 10월 1일 동 건물을 ₩2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0

② ₩50,000 증가

③ ₩50,000 감소

④ ₩100,000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2년에는 **감가상각비 50,000원과 건물처분이익 50,000원이 상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전기 말 손상차손을 반영한 장부금액 200,000원을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20×1년 말 장부금액: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1월 1일부터 사용하였으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frac{400{,}000-0}{4}=100{,}000$원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300,000원이 회수가능액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100,000원을 인식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200,000원으로 낮춘다. 이 손상차손은 **20×1년의 비용**이다.

2. 20×2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을 잔여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잔존가치는 0원이고 잔여 내용연수는 3년, 즉 36개월이다. 10월 1일 처분 전까지 사용한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므로, 월할상각한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cdot 9}{36}=50{,}000$원이다. 이는 20×2년 당기순이익을 50,000원 감소시킨다.

3. 건물처분이익: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200,000 − 50,000 = 150,000원이다. 처분이익은 처분대금에서 **처분일까지 감가상각한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므로, 200,000 − 150,000 = 50,000원이다. 이는 20×2년 당기순이익을 50,000원 증가시킨다.

4. 당기순이익 영향: 감가상각비에 따른 감소액과 처분이익에 따른 증가액을 합하면 −50,000 + 50,000 = 0원이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의 순증감액은 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③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④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뜻한다. 따라서 자산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정하는 **측정기준 자체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이다. 같은 측정기준 안에서 금액 산정에 필요한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과 구별한다.

② O: 감가상각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것이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가 바뀌면 그 예상을 반영하도록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는 **자산의 효익 소비에 관한 추정의 수정**이므로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③ O: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에 처음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거래에 적용해 오던 기존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회계정책 변경은 적용하는 원칙이나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이고, 회계추정치 변경은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예상이나 추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두 변경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여 회계정책 변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 자료이다. 당기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이 ₩150,000일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	기말
재고자산	₩ 15,000	₩ 21,000
선급금	₩ 7,000	₩ 15,000
매입채무	₩ 6,000	₩ 10,000

① ₩134,000

② ₩140,000

③ ₩152,000

④ ₩168,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에서 **선급금 증가액을 빼고 매입채무 증가액을 더하면** 당기 매입액은 146,000원이다. 여기서 판매되지 않고 늘어난 재고 6,0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14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선급금 증가액 조정: 선급금은 재고를 받기 전에 공급자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기초 7,000원에서 기말 15,000원으로 8,000원 증가했으므로, 현금유출 150,000원에는 당기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선지급액이 순액으로 8,000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유출에서 **선급금 증가액 8,000원을 뺀다**.

2. 당기 매입액 계산: 매입채무는 재고를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기초 6,000원에서 기말 10,000원으로 4,000원 증가했으므로, 현금 지급액보다 당기 매입액이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매입채무 증가액 4,000원을 더한다**. 당기 매입액은 150,000 − 8,000 + 4,000 = 146,000원이다.

3. 매출원가 계산: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재고의 원가가 되고, 여기서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의 원가를 빼면** 판매된 재고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된다. 재고자산은 기초 15,000원, 기말 21,00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15,000 + 146,000 − 21,000 = 140,000원이다.

당기 매출원가 140,000원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주)한국의 20x1년 A주식(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월 1일 처음으로 A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와 함께 ₩50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다.

① ₩45,000 증가
② ₩50,000 증가
③ ₩145,000 증가
④ ₩150,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수수료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처분이익과 기말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처분이익 50,000원과 평가이익 100,000원에서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45,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1. 취득금액과 수수료: 4월 1일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100주 × 5,000원 = 500,000원이다. 현금 지급액 505,000원과의 차이인 5,000원이 거래수수료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수수료는 자산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주식은 500,000원으로 인식하고 당기순이익은 5,000원 감소한다.

2. 처분이익: 9월 1일 매도한 50주의 처분대금은 50주 × 6,000원 = 300,000원이다. 매도한 주식의 장부금액은 50주 × 5,000원 = 25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은 300,000원 − 250,000원 = 50,000원이다. 이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3. 기말 평가이익: 남은 주식은 100주 − 50주 = 50주이며, 평가 전 장부금액은 50주 × 5,000원 = 250,000원이다. 결산일 공정가치는 50주 × 7,000원 = 350,000원이므로, 평가이익은 350,000원 − 250,000원 = 100,000원이다. 이 금융자산은 **보유 중인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아직 매도하지 않은 50주의 평가이익 역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4. 당기순이익 영향: 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을 더하고 취득 수수료를 차감한다. 50,000원 + 100,000원 − 5,000원 = 145,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45,000원 증가하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오염 정화 방침을 공표하고 실제로 지켜 온 기업이 당기에 오염을 유발하면, 이를 정화할 **의제의무**가 생긴다.
앞으로의 조업을 위한 정비·교체 지출과 달리, 이미 발생한 오염에 대한 현재의무이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공표한 방침이나 과거의 관행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이 문제에서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어졌다.

ㄱ. X: 3년마다 정밀정비를 해야 한다는 법률상 요구가 있어도, 이는 항공기를 앞으로 계속 운항하기 위한 조건이다. 항공기를 매각하는 등 향후 행동으로 정비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당기 취득만으로는 **미래 운항과 독립된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정밀정비 비용을 당기에 충당부채로 미리 인식하지 않는다.

ㄴ. X: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할 기술적 필요는 앞으로 용광로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당기 말까지 3년간 사용했더라도 용광로 가동을 중단하면 미래 교체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교체에 대한 현재의무는 없다. **이미 사용한 내벽의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으로 반영**하며, 미래 내벽 교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지 않는다.

ㄷ. O: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이를 준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들은 기업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한다. 여기에 **당기에 실제로 오염을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여 정화에 대한 의제의무가 생겼다. 이미 발생한 오염의 정화의무는 향후 사업을 중단해도 남는다. 정화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는 ㄷ만이므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오류는?

① 매입채무 ₩15,000을 상환하고, 현금계정의 대변에 ₩15,000, 미지급금계정의 차변에 ₩15,000을 기입하였다.

② 임차보증금 ₩6,000을 지급하고, 현금계정의 대변과 임차보증금계정의 대변에 각각 ₩6,000을 기입하였다.

③ 미수금 ₩12,100을 회수하고, 현금계정의 차변에 ₩12,100, 미수금계정의 대변에 ₩11,200을 기입하였다.

④ 비품 ₩8,000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비품계정의 대변과 미지급금계정의 대변에 각각 ₩8,000을 기입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므로, 금액과 기록 방향이 같고 계정과목만 잘못된 오류는 발견하지 못한다. 매입채무 대신 미지급금의 차변에 15,000원을 기록해도 차변·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은 복식부기의 차변·대변 금액 일치를 이용하여 기록 오류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과목까지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각 선지는 제시된 오류가 이 기능으로 발견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매입채무를 상환하면 부채인 매입채무가 감소하므로 매입채무 차변에 15,000원, 자산인 현금이 감소하므로 현금 대변에 15,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제시된 기록은 매입채무 대신 미지급금을 차변에 적은 **계정과목 오류**이다. 차변과 대변에 각각 15,000원이 기록되어 합계가 일치하므로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② X: 임차보증금 지급은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이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차변**에 6,000원, 현금 대변에 6,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제시된 기록처럼 양쪽 계정의 대변에 각각 6,000원을 적으면 대변 합계가 차변 합계보다 12,000원 많아져 시산표에서 발견된다.

③ X: 미수금을 회수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미수금이 감소하므로 현금 차변과 미수금 대변에 **동일하게 12,100원**을 기록해야 한다. 미수금 대변에 11,200원만 적으면 차변 합계가 대변 합계보다 12,100 - 11,200 = 900원 많아져 시산표에서 발견된다.

④ X: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비품이라는 자산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비품 차변**에 8,000원, 미지급금 대변에 8,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제시된 기록처럼 두 계정 모두 대변에 각각 8,000원을 적으면 대변 합계가 차변 합계보다 16,000원 많아져 시산표에서 발견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이 20x1년 초에 발행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 일시상환)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이 ₩970,00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보다 작다.

② 사채의 발행금액은 20x1년 말 장부금액보다 크다.

③ 20x1년 인식한 사채 이자비용은 ₩50,000이다.

④ 20×2년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130,00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x2년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비용에는 **남은 현금이자 100,000원**과 **미상각 할인액 30,000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13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1,000,000원 × 표시이자율 5% = 50,000원이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사채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할인발행한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고, 그 차액인 할인액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하여 만기에는 액면금액에 이른다.

① X: 20x1년 말 장부금액 970,000원이 만기 상환액인 액면금액 1,000,000원보다 작으므로 할인발행한 사채이다. 할인발행은 약정된 현금이자만으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여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발행하는 경우이므로, 유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 5%보다 **크다**.

② X: 할인발행한 사채는 할인액을 상각하면서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20x1년 초의 발행금액에 첫해 할인액 상각액을 더한 금액이 20x1년 말 장부금액 970,000원이므로, 발행금액은 970,000원보다 **작다**.

③ X: 50,000원은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이다. 20x1년의 이자비용에는 현금이자에 더하여 첫해 할인액 상각액도 포함되므로, 인식한 이자비용은 50,000원보다 크다.

④ O: 만기가 3년이므로 20x1년 말 이후에는 20x2년과 20x3년의 현금이자 50,000원 × 2년 = 100,000원이 남아 있다. 또한 현재 장부금액 970,000원을 만기 상환액 1,000,000원까지 증가시켜야 하므로 **미상각 할인액 30,000원**도 남은 기간의 이자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20x2년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이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10,000)를 주당 ₩12,0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발행 전 주식할인발행차금이 ₩40,000일 경우, 주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은?

① ₩10,000

② ₩40,000

③ ₩50,000

④ ₩9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액면금액을 초과한 발행금액에서 **주식발행 직접원가와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다. 초과 발행금액 100,000원에서 각각 10,000원과 40,000원을 차감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액면초과 발행금액 계산: 보통주 발행대금은 50주 × 12,000원 = 600,000원이다. 이 중 자본금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50주 × 10,000원 = 500,00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6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이 발행원가 등을 차감하기 전의 주식발행초과금이다.

2. 주식발행 직접원가 차감: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10,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발행원가를 반영한 금액은 100,000원 − 10,000원 = 90,000원이다.

3.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하여 생긴 자본 차감액이다. 기존 잔액 40,000원을 **새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하므로, 주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은 90,000원 − 40,000원 = 50,000원이다. 이는 ③의 5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 월할상각)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3년 말에 동 기계장치를 ₩200,000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10,000을 인식한 경우, 동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단, 손상차손은 없다)

① ₩ 0

② ₩ 50,000

③ ₩ 100,000

④ ₩ 2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처분이익은 처분대가가 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19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으로 3년간 감가상각대상금액의 $\frac{9}{10}$을 상각한 결과이므로 잔존가치는 **1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처분 직전 장부금액: 처분이익은 처분대가에서 처분 직전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200,000 − 10,000 = 190,000원이다.

2. 감가상각누계액: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20×3년 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 − 190,000 = 810,000원이다.

3. 누적 상각비율: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년 감소하는 비율을 곱한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며, 첫해부터 적용하는 비율은 각각 $\frac{4}{10}$, $\frac{3}{10}$, $\frac{2}{10}$, $\frac{1}{10}$이다.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만 3년을 사용했으므로, 월할상각을 적용해도 각 연도에 12개월분을 반영한다. 따라서 3년간의 누적 상각비율은 $\frac{4+3+2}{10} = \frac{9}{10}$이다.

4. 잔존가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D원이라 하면, 그중 $\frac{9}{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 810,000원이다. 따라서 $D = 810{,}000 \cdot \frac{10}{9} = 900{,}000$이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뺀 1,000,000 − 900,000 = 1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모두 발생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재평가 목적상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④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지출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단계 지출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 지출 중 자산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② O: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면, 이후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원가로 되돌릴 수 없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날 이후에 발생한 해당 지출을 포함한다.

③ O: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려면 재평가 목적의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해야 한다.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O: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은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상각액을 배분할 유한한 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NoteBase